

韓國에 있어서 原子力에 對한 國民理解活動 方法論의 考察



李 龍 水
〈東亞日報 科學部長〉

오늘날 原子力 만큼 인간생활에 깊이 관계하고 있는 것도 드물다. 動力과 빛을 내는 에너지源으로서, 그리고 인간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식물의 品種改良 등 과학적인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각종 정밀치수의 측정과 非破壞檢査 등 그 용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하다. 그리고 앞으로 원자력은 에너지源으로 자리를 굳힐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그 용도의 개발 여하에 따라 그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처럼 오늘날 각광을 받고 있는 원자력도 인간이 처음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원자력에 대한 國民理解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이 되었다.

역사에선 가정이 있을 수 없지만 만약 원자폭탄이 사용되기 전에 원자력발전소가 먼저 생겨났더라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생각해 본다. 만일 그런 경우라면 오늘날 원자력을 바로 核武器로 관련지어 생각하는 國民意識은 크게 줄지 않았을까 생각

해 본다.

國民理解의 本質

원자력에 대한 國民理解는 단순히 원자력에 국한되는 문제 만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현대의 科學技術과 기존의 농경문화 및 儒敎文化와 의 가치적 갈등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원자력이나 화학공장 등 거대과학산업의 경우는 그것이 인간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부를 가져온다는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사고의 위험성이나 폐기물에 의한 環境破壞 등 부정적인 문제가 牧歌의인 삶을 추구하려는 자연주의자들이나 아직도 현대의 과학문명에 同化되기를 꺼리는 사람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科學技術先進國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배워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설 수 있음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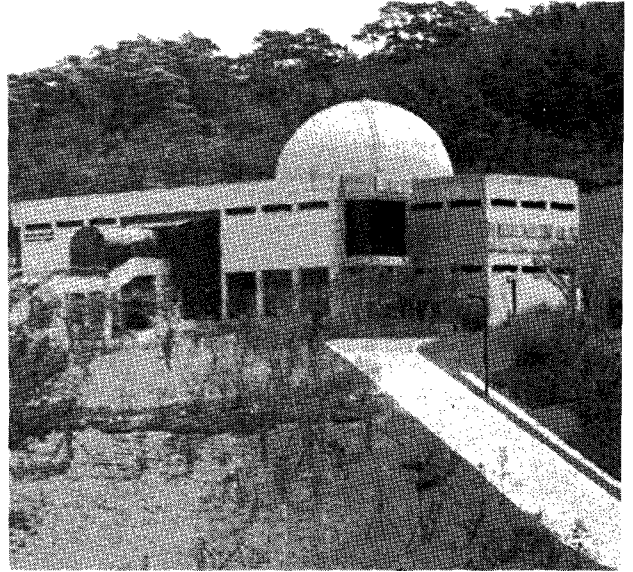
물론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적어도 현재로서 우리는 과학

기술을 개발·축적하면서 국가의 부를 늘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여기에 현대과학기술을 수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과학기술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 원자력은 현대과학 중에서도 가장 첨단 분야의 하나인 물질구성의 기본입자 및 그 구성 단위를 연구하고 거기서 생겨나는 여러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는 난해한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은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기 쉽고, 그것을 이해시키는 전문가들의 노력은 힘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것은 원자력 이해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원자력의 문제는 그 본질을 이해하고 에너지資源으로써 長·短點을 분석·비판하는 문제 보다 정치·사회적인 문제와 더 깊게 뒤엉켜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계되는 사람들의 이해·관심·태도를 하나로 統一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바로 弘報의 基本戰略이다. 특히, 원자력 같이 상반된 의견대립이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 이의 合一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의 제시는 그리 간단치 않다. 다만 원자력이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해시키고 아울러 그것이 가지는 否定的인 요소와 거기에 대한 對應策을 국민에게 꾸준히 납득시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략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原子力關係者들에 있어서 원자력의 國民理解는 焦眉의 급선무가 되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정책의 중요한 쟁점이기도 하다.

더욱 原子力産業 가운데 발전사업의 경우, 그것이 국가의 核心에너지産業의 하나가 되고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필수적이 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처럼 민주화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原子力政策의 目標와 手段을 국민에게 알려 함께 同參을 구하는 일은



▲영광원자력발전소 전시관전경

原子力政策을 効率的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름길을 제공한다.

어떤 內容을 弘報할 것인가

언론은 물론 일반국민이 즐겨 다루는 얘기는 肯定的인 것 보다 否定的인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에 귀가 더 솔깃해 진다. 原子力에서는 더욱 그렇다. 원자폭탄에 의한 否定的인 印象들이 원자탄 때문에 이미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적어도 편견없이 보도록 하느냐는 것이다.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원자력에서 나오는 放射能이 環境을 破壞하여 결국 인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급기야는 인류의 生存마저 威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혹시 사고라도 나면 그것은 國家的인 災害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世界的인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否定的인 요소 외에 원자력이 가진 깨끗한 에너지란 장점과 낮은 生産費 그리고 폭 넓은 利用分野는 원자력이 가진 또다른

분야이기도 하다. 더욱 우리나라 처럼 에너지資源이 없는 현실에서 원자력의 이용은 다른 선택의 여지를 남겨 두지 않고 있다. 더욱 公害問題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오늘날 인류는 기존의 에너지원이었던 化石燃料에 더 이상 목줄을 매고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에너지원의 확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달라질 때도 됐다. 더욱 오늘날 公害의 主犯이 化石燃料 때문이라는 것이 거의 확인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해없는 에너지원의 확보는 바로 인류의 當面課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력의 긍정적인 측면은 사고 없는 安全運轉을 大前提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안전성의 확보는 절대 명제일 수 밖에 없다.

과거의 弘報

일반적으로 홍보 가운데 가장 비조직적이고 비전문적인 弘報戰略이 자기 자신을 위한 홍보이다. 소위 自身宣傳 만을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 이외의 관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과거 原子力에 대한 홍보방법은 바로 자기 PR의 전형이었다. 그저 “原子力은 安全하고 좋은 것이다”라는 점 만을 강조했다.

그러나 原子力發電 弘報關係者들의 이 홍보캐치프레이스는 가장 비전문적인 홍보의 전형에 속한다. 홍보의 대상을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다. 물론 원칙론에서는 틀림없는 原論이다. 그 원론을 항상 홍보의 밑바탕에 깔아야 한다. 세상사람들의 요구는 많이 바뀌어졌다. 그 요구에 부응하면서 자신을 PR을 해야 한다. 이런 홍보나마 최근에 原電關係者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原電關係者들에게는 큰 변화를 의미한다. 적어도 國民을 意識했다는 의미다.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될 당시에는 원자력발전

이 왜 필요하며, 그것이 가진 장점과 단점은 각각 무엇이었는지 알길이 없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原子爐의 종류를 정하고, 敷地를 선정했다. 그래서 그곳에서 대대로 땅을 물려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은 땅을 잃게 되었다. 정당성이 이해되지 않은채 큰 재산이라고 여겼던 땅이 그린벨트에 묶이고,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에는 통행이 금지되었다. 목적달성 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정책에 原電周邊의 住民들은 얼마만큼 안전한 상태에 자신들이 놓여있는지를 알길이 없었다. 원전에서 일하는 인부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알아야 할 권리를 빼앗기고 살아왔는지 모른다.

原電의 核心인 原子爐가 처음에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社의 輕水爐型 原子爐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캐나다원자력공사의 重水爐型 原子爐가 들어왔다. 그리고 다음에는 프랑스의 프라마툼社의 원자로가 들어왔고, 최근에는 미국 컴버스천엔지니어링社의 輕水爐技術이 들어와 새로운 모형의 原子爐市場을 구축하고 있다. 외국에서 이처럼 새로운 원자로가 들여져 올때 마다 거기에는 거대한 흑막이 있었던 것처럼 소문이 풍성했고, 이러한 소문은 결국 원전의 일방적이고 밀어부치기식의 정책결정이 뒤늦게 反原電이란 회오리를 몰아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거센 反原電회오리는 과거의 잘못된 정책수행에 대한 보상일 수 있다.

과거의 이러한 어거지 일들이 오늘날에는 “잘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결코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음을 사람들은 안다. 이제 모든 일이 順理이기를 바라는 것은 단순히 民主化의 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역사의 소명이기도 하다. 부끄러웠던 과거의 역사를 씻고 음침한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모두다 아는 일이 되고,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민주화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한다.

原子力 批判勢力

전국에서 反原電, 反核運動이 심심치 않게 일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反原電, 反核運動을 적극적으로 일으키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들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원자력의 국민이해를 돕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원자력의 비판세력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원전의 부정적인 점을 주로 부각시키면서 반원전운동을 정치세력과 결부시키고 있는 急進勢力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원전 주변에 살면서 원전의 건설에 따른 생계의 위협을 받거나 원전이 들어섬으로써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잠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組織化되고 어느 정도 識者層에 들어가며 意識化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또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反原電運動을 하도록 부추기기도 한다. 그들의 지향은 이미 원자력문제를 벗어난 政治的인 데 있다. 이 경우에 이르면 이미 원자력의 문제는 經濟性이나 安全性의 문제 등 원자력의 본래적인 속성을 떠나 있으며, 따라서 원자력의 원론적인 것을 문제삼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 된다.

최근 반핵단체의 하나인 公害追放運動聯合의 한 관계자가 어느 신문에 쓴 글을 보면 그들의 목적이 다분히 정치적인데 있음을 느끼게 한다. 그들은 원자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는 체르노빌事故와 같은 大慘事가 일어날 때와, 나머지 하나는 核發電所를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자와 같은 불행한 방법이 아닌 후자의 방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이미 확신에서 우려난 것인지도 모른다.

정치적인 이슈 가운데 원자력 만큼 국민에게 잘 먹혀 들어가는 것도 드물다. 특히, 부정적인

측면은 그렇다. 그래서 전자의 急進勢力들은 종종 원자력을 政治·社會的인 이슈로 다룬다. 원자력을 이용한 핵무기의 피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만큼 쉽게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기 쉬운 것이다. 그래서 그들 원자력비판세력들에게 원자력의 본질을 얘기하고 원자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百年河清이다.

후자의 경우인 原電地域 住民들은 부당하게 잠재적인 위협을 이유없이 감내하는 집단이다. 그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이유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집 주위에 原電이 들어섬으로써 핵의 잠재적 위협에 노출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反對給付없이 그들에게 부과되는 위협을 감내하려 하지 않는다. 비단 이미 원전이 들어선 곳의 주민들 만이 아니라 앞으로 原電이 들어설 곳의 주민은 물론 核廢棄物處理施設이 들어설 곳의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여러 조사들은 90% 이상이 자기집 주위에 原電이 세워지기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조사는 원자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原電周邊 地域住民들은 본질적으로 原電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방사능에의 위협이 문제의 초점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요구는 다른데 있다. 즉, 보다 잘 살기 위한 經濟的인 利得을 얻는 방편으로 원자력문제를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지역주민을 다뤄야 하는 문제의 核心이다.

각 지역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에는 한전의 사원주택이 있다. 주민들은 자신의 주택이 한전 사원들의 주택만 못하고, 그들의 삶이 한전직원들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뒤떨어진다는 것을 매일 느끼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원전에서 오는 잠재적인 위협을 경제적으로 보상받



▲원자력 포스터 및 사생작품 전시회광경

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이다.

한때 원전지역 주민들이 서울 한국전력 본사에 찾아와 요구한 사항은 원전에 대한 본질적인 安全對策을 요구한 것이라기 보다 실제로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거나, 生活對策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미 원전의 안전에 관한 科學技術的인 安全의 問題가 아니라 社會的인 問題인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원자력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는 집단은 크게 4집단으로 가지를 나눌 수 있다. 첫째가 原電의 安全性을 不信, 철저하게 反對立場에 있는 집단이고, 둘째는 原電 周邊地域에 살면서 經濟的인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집단이고, 세번째는 原子力을 贊成하는 집단이며, 마지막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다수의 國民大衆들이다.

이들에게는 각각 그 나름대로의 戰略이 필요하다.

첫째 그룹은 현실적으로 가장 다루기 힘든 집단이다. 그들은 信念의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홍보전략이 있을 수 없다. 다만 安全을 최대한으로 確保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길을 확대하는 길 뿐이다. 일반대중이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일반대중을

그들로 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자료의 공개는 필수적이지만 때때로 정당한 자료가 이들에 의해 曲解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두고 보는, 그래서 일반대중이 이들에게 어떻게 동조하는지를 조사하면서 일반대중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들 집단이 결코 원자력의 발전을 저해시킨다고 매도할 필요는 없다. 또 그래서도 안된다. 다양한 사회일수록 다양한 목소리가 물흐르듯 자연스레 흘러나와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선의의 原電安全監視者가 돼야 한다. 이러한 집단의 출현은 지금까지의 原子力關係者(엄밀히 말하면 정치가)들의 일방적인 원자력정책의 썩기를 막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두번째 집단은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해결이 가능한 집단이다. 현재도 原電 周邊地域에서는 크고 작은 협조사항이 原電 運轉者들과 住民 사이에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은 만족해 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韓電이 原電에서 생긴 이익을 電氣料金 引下로 사회에 환원했다. 차라리 그 전기요금 인하분을 원전지역 주민을 위해 쓰는 것이 더 좋지않았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당시에는 주민을 직접 지원할 제도적인 장치가 돼있지 못했지만 이제는 “發電所 周邊地域 支援에 관한 法”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原電 周邊地域을 먼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공원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처럼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원전이 안전하다면 필요 이상의 금지구역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地域共同事業에 원전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 종교, 단체, 병원 등에 종사하는 지역의 核心人士들을 대상으로 원자력의 必要性 및 그 安全性을 있는 그대로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전은 무서운 곳이 아닌 바로 “우리의 생활터”라는 실질적인 인상을 심어주도록 해야 한다. 종종 公開討論會를 가져 원전의 실상을 그대로 알리고 필요한 조사는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의 이들이 바로 자신의 일들이라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

세번째 原電을 아는 집단들은 그들이 원전에 대해 갖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보다 積極的으로 국민들에게 원자력을 이해시키는데 동참해야 한다. 우선 한전직원부터라도 좋다. 가족을 이해시키고, 다음에 이웃을 이해시켜야 한다.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방관자가 돼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침묵하고 있는 大衆에 대한 弘報問題다. 이들에게는 定石의 홍보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原電이 가진 長·短點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현재의 에너지상황 및 미래의 에너지전망까지도 소상히 알림으로써 스스로 선택의 길을 택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大前提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지금까지 실추된 關係當局의 信賴를 회복하는 일이다. 관계당국은 政府나 韓電 등 原子力 關係機關을 말한다. 그 不信은 자료의 非公開에서 비롯됐고, 일방적인 독주에서 싹텄다. 이제는 敷地選定에서부터 적어도 지역주민들의 뜻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더불어 생각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과장된 설명과 지나친 홍보는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한다. 지나친 규제는

주민을 겁먹게 만들고 원전을 그만큼 무섭고 나쁜 곳일 것이라는 생각을 싹 틔운다.

원전의 장점 못지않게 危險要素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해 줘야 한다. 그것은 피고용자에 대해서만 아니라 原電을 걱정하고 있는 대중에 대한 최소한의 道德性이기도 하다. 홍보는 원자력의 문제, 즉 방사능의 문제의 과학성과 대중의 이해 사이에 놓인 거리를 좁히는 일이기도 하다.

때로는 專門的인 용어가 필요하지만 가능한한 쉬운 말로 설명해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의 핵심은 물론 전후관계도 설명해야 한다.

특히, 女性은 중요한 弘報의 對象이다. 그들은 남자들 보다 원자력에 대해 더 겁먹고 있다는 조사가 있다. 남자들이 주로 原子力發電所 建設에 대한 政策決定이나 建設, 運轉 등을 하기 때문에 여자들 보다 원전을 이해하지만, 여자들은 그런 기회가 적어 원전을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 여자들이 남자들 보다 자연과학에 관심이 덜하기 때문에 원자력을 기피하면서 원전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론형성에는 여성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침묵하는 대중에서도 여성집단을 主要 弘報對象으로 삼는 것은 중요하다.

結 言

原子力에 대한 國民理解는 原子力政策의 초미의 急先務가 되고 있다. 그것은 에너지가 중요한 것 만큼 급하고 절실한 문제다. 원자력이 단순히 民主化의 바람을 타고 문제가 제기되고 토론되고 참다운 輿論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것이 가진 넓은 이용 폭과 잠재적인 위험성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이 해의 바탕 위에서 정책이 다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